



豚子가라사대...

가을엔 마이 아파?

가을이 무르익어 낙엽이 떨어지고 낙엽 따라 사랑도 가버린 연인들은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겠지만 아픈 사람들이 비단 가을에 찢어진 연인들만은 아니랍니다.

멀리 찾아 볼 것도 없이 우리 양돈계를 돌아보면 매년 찾아오는 봄가을, 환절기를 겪으면서도 매년 계절성 번식장애로 생산성 저하를 겪어야 하는 사람들도 많고 가을비 한 번 내리거나 갑작스럽게 아침저녁으로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해서 일교차가 심하게 벌어지면 어김없이 이유자돈 뇌막염이나 글래서씨병, 홍막폐렴 등의 질병이 발생해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어야 하는 참으로 생각슴 찢어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요.

더구나 묘하게 이런 질병으로 죽는 애들을 보면 하나같이 '돈 좀 되겠구나'하는 것들만 골라서 죽게 되고 이렇게 음팡지게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내 농장에서 매년 계절이 바뀌는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니 어찌 두껍이 열리지 않겠어요?

환절기를 좋아하는 이유자돈뇌막염 - 성격 알아보기

별써 이번 주만 해도 세 곳이나 되는 농장



황운재 팀장
강원양돈농협 수의팀

을 비슷한 이유 때문에 방문해야 했는데 역시 날씨가 나빠지고 나면 어김없이 그 하루 이틀 후에 전화가 오더군요.

이유자돈 뇌막염이나 글래서씨병과 같은 증상, 또는 급만성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였는데 다들 그런 증상에 대한 치료나 예방 백신

신 등에 대한 정보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섭섭(?)했지만 눈앞에서 애지중지 키운 녀석들이 넘어가니 어찌겠습니까?

그렇지만 매년 환절기 때마다 남들처럼 다쳐서야 어디 경쟁력 있는 농장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번 기회에 이론적인 무장을 공고히 해보는 것도 무의미한 일은 아닐듯 싶군요.



▲ 뇌막염으로 안구진탕에 이어 옆으로 누워 허우적거리는 이유자돈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연쇄상구균(Streptococcus suis 2)에 의한 이유자돈뇌막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연쇄상구균의 일종이 이유자돈뇌막염의 원인균이라는 것쯤은 이제 누구라도 아실 터이지만 뭐 혈청형이 30개가 넘어 엄청 가문이 복잡한 세균이라든가 등등의 살짝 전문적인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어지간한 양반들은 머리에 안개가 희미하게 끼기 시작해서 좀 시간이 지나도록 책을 보면 어느새 눈이 감겨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물론 알면 나쁠 것이야 없겠지만 제 생각에 양돈현장에서는 이런 현미경적인 지식보다는 사양관리 단계에서 해당 질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같은 보다 실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질병이 농장에서 갑작스럽게 발병하면 어떤 분은 '언놈이 이걸 내 농장에 묻혀 왔냐'며 거의 뒤집어지려 하는데 제 짐작으로는 이미 우리나라 양돈장에 이 균이 없는 농장 찾기는 어려울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만연되어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그 확산의 주범은 아마도 밖에서 구입한 돼지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겁니다. 즉 농장에 알게 모르게 잠복해 있다가 셋바람이라든가 일교차라든가 하는 스트레스 요인이 가해지면 그 틈을 노려 터지는 것이지요.

치료보다 방어- 터지기 전에 막는다

물론 세균성 질병이고 시기만 놓치지 않는다면 치료가 가능하고 약제도 잘 듣는 것이 있지만 그보다는 가능하다면 기본적인 사양관리 단계에서 질병을 예방하는 편이 훨씬 편하고 돈도 적게 들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스트레

스 요인들이 이 질병을 발생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일까요?

- 밀사(단순히 면적 외에 공간의 개념도 생각해 보자.)
- 이유 후 다른 복의 자돈과 혼합사육
- 부적절한 환기(높은 습도, 셋바람, 산소부족, 높은 먼지농도 등)
- 부족한 영양(비타민E 부족 등)
- 연속사육(올인 올아웃의 부재)
- 젖은 돈사 바닥
- 잘못된 슬러리 관리로 발생된 유해가스로 호흡기관 손상
- 기타 스트레스 요인

(참조: 돼지의 건강관리와 질병의 치료)

그런데 만일 우리농장에는 이 질병이 없다고 가정해 보지요. 이런 농장에서 가장 중요한 방역관리는 역시 차단방역입니다.

'차단방역'하면 어떤 분은 주야장창 분무소독만 생각하는데 물론 이 질병의 원인균은 폐놀이나 염소계, 또는 요오드계열의 소독약에 쉽게 살멸이 됩니다만 차단방역의 본질을 소독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소독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돼지를 외부에서 구입할 때 그 세균을 갖지 않은 돼지를 사오는 노력이고 또한 사오더라도 일정기간 기존 돈군과 잘 격리된 장소에서 별도로 구입한 돼지를 키우는 일단의 프로그램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차단방역'의 핵심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이 참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데 오늘날 PMWS 등이 판을 치는 이유 중에 바로 이런 점도 한 몫 단단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환기부분은 보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유자돈 뇌막염이 환절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실상은 농장마다 환기나 온습도 관리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군요.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있던 농장에서는

1. 원치커텐의 설치불량 : 밑에서 열리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셋바람의 영향을 준다.
2. 번식돈군이나 다른 덩치 큰 비육돈군과 같은 돈사를 써서 온도관리가 실상 불가능하다.
3. 돈사 벽체나 지붕이 시멘트 블록구조이거나 보온덮개, 슬레이트 등으로 되어있어서 실상 단열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
4. 기계환기 체계로 되어 있지만 환기량이 맞지 않는다: 과환기로 인한 셋바람 발생 또는 환기량 부족으로 인한 과습 및 산소부족, 유해가스 증가

등의 문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책임 있는 자문을 받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터지면 즉시 행동하라

불행하게도 이 질병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본 질병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즉시 투약해야 합니다. 얼마나 빨리 치료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1. 치료 첫날 속효성 제제 주사(예: 암피실린 등을 1일 2회 이상 주사한다.)
2. 이후에는 지속성 제제 주사(예: 지속성 페니실린이나 아목사실린 등)
3. 아픈 돼지는 물조차 먹을 수 없게 되므로 호스 등을 이용해 물을 먹이면 더욱 좋다.
4. 깔짚을 갈 수 있으면 좋고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
5. 지속적인 문제가 되는 농장은
 - 이유 시 지속성 약제의 주사
 - 주요 호발일령 2~3일전에 돈군 단위로 투약
 - 이유 후 약 3주간 적절한 약제 사료첨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이제 농장에서 환절기에 이유자돈 뇌막염을 잘 막아낼 수 있겠지요? **양돈**



도아우

돼지고기의 냄새를 없애는 조리법 ● ● ●

돼지고기 요리가 다양하게 발달한 나라는 역시 중국으로 돼지고기 요리가 보편화되어 있다. 돼지고기가 영양적으로 우수한 건 인정하지만 돼지고기 특유의 심한 누린내 때문에 먹기가 싫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돼지고기를 조리할 때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냄새를 없애는 것이다.

- ①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요리할 때 팔각이나 정향을 쓴 것은 바로 냄새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 ② 편육을 삶을 때 생강이나 파 잎을 넣어 삶기도 하고,

물에 된장을 풀거나 녹차 잎을 조금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③ 볶음 짬을 할 때는 반드시 고기의 수분이 날아가도록 센 불에서 볶아야 냄새가 나지 않는다. 또 볶을 때 청주를 한 방울 넣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 ④ 양념을 매콤하고 진하게 하거나 조릴 때 식초를 한 방울 넣는 것도 좋고, 아이들을 위한 요리라면 케첩으로 새콤달콤하게, 또는 카레가루를 이용하는 것도 권할 만하다.